

일부 재활관련 전문가의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연구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중심으로 -



The Journal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 구현모, 이인희¹
- 영산대학교 보건의료대학 물리치료학과, ¹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Job Stress among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Hyun-Mo Koo, PT, PhD; In-Hee Lee, PT, MSc¹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ungsan University; ¹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job stress with regard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s (P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OTs).

Methods: The study involved administering questionnaires to 93 PTs and OTs who worked in urban medical institutions between November 2009 and October 2009. A questionnaire (KvSBQOL) developed by Dunbar and colleagues and translated into Korean version by Yoon et al was used for measur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m was used for measuring job stress.

Results: Among PTs and OTs, the mean quality of life score was 3.10 points and the mean level of job stress was 3.42. Female PTs and OTs had significantly greater levels of job stress. Those PTs and OTs in the 'Lowest pay' group and in the 'Associated Degree' group reported the lowest quality of life. Those in the 'Very healthy' group of PTs and OTs had significantly lower job stress than the other groups. The group with the highest job stress had the lowest quality of life. A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all data was self-reported and subject to associated bias.

Conclusion: To prevent loss of business services by PTs and OTs, it is important to know how job stress affects quality of life. Our findings suggest that a reduction in job stress can improve quality of life among PTs and OTs.

Keywords: Job stress,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Subjective quality of life

논문접수일: 2009년 12월 29일

수정접수일: 2010년 3월 28일

게재승인일: 2010년 4월 7일

교신저자: 이인희, yiinhee@hanmail.net

1. 서론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이 전체 생활의 일부지만, 업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직장 생활이 직장인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인에게서는 업무상 받는 스트레스가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를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¹ 업무 스트레스의 원인은 우울증, 사회 심리적 장애 같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근골격 질환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업무 스트레스는 개인이 상황이나 환경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일의 요구도가 높고 통제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 업무 스트레스는 걱정할 경우 심신활동을 촉진, 활성화시켜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 해결력을 고조시키고

동기를 유발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스트레스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역기능이 작용하여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²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²는 삶의 질을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체계 속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및 관심들과 관련하여 삶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의 질은 건강, 주택, 직업 가족, 개인의 안녕, 교육 여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³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반드시 객관적 부나 생활조건 정도의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곡선을 그리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주관적 평가에 의존한다.⁴ 주관적 삶의 질은 각 개인이 지각하는 만족이나 안녕, 행복감을 말한다.^{5,6}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 보호자, 동료 의료인 등의 다양한 대상자와의 근무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은 치료사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의료인과의 원만한 관계와 환자의 치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한국에서 삶의 질 평가는 대부분 외국의 삶의 질 측정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WHOQOL-BREF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 Brief Form),⁷ Nottingham Health Profile, COOP/WONCA chart (Dartmouth Primary Care Cooperative Information Project/World Organization of National Colleges, Academics, and Academic Associations of General Practice/Family Physicians), SF-36 (The short form-36 Health Survey), SBQOL (SmithKline Beecham quality of life)가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담당하는 환자 수, 근무시간, 업무량, 보수, 후생 복지 등의 근로조건들이 매우 열악한 실정⁸으로 인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물리치료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1,005매의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한 연구⁹와 91명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국 작업스트레스 연구회의 스트레스 평가법을 따른 자기 기입식 설문연구¹⁰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 지역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하고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주관적 삶의 질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09년 9월에서 10월까지 A 지역 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된 1715명의 물리치료사 중 2009년도 시회비를 납부한 203명의 물리치료사와 A 지역 작업치료사협회에 중앙회비를 납부하고 활동중인 작업치료사 106명 중 편의표집방식에 따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기 기입식 설문지 110부를 배포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 100부가 회수되어 90.9%의 회수율을 보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7부를 제외한 9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측정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참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결혼유무, 종교, 직위, 학력, 임상 경력은 기입식으로, 소득수준, 건강상태는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5점의 등간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업무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척도는 Kim¹¹이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업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수정하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부족, 자아실현 제한,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 제한, 과중한 업무량, 동료와의 갈등과 치료사와 의사 간 환자의 문제점과 치료에 대한 이견 등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총 44문항이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0.92이었다.

(3)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 Dunbar 등¹²가 개발한 28문항의 SBQOL 측정도구를 Yoon 등²이 번안한 23문항의 한국어판 스미스클라인 비참을 주관적 삶의 질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72이었다.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 (%)	M±SD
Age	20-25 years	42	45.2	27.02±5.11 (years)
	26-30 years	35	37.6	
	31 years over	16	17.2	
Sex	Male	43	46.2	
	Female	50	53.8	
Job classification	Physical therapist	60	64.5	
	Occupational therapist	33	35.5	
Marriage	Married	16	17.2	
	Not married	77	82.8	
Education	Associated degree	56	60.2	
	Bachelor's degree	18	19.4	
	MSc or PhD	19	20.4	
Clinical career	3 years or less	44	47.3	42.87±5.02 (months)
	3-6 years	28	30.1	
	6 years over	21	22.6	
Pay	Below ₩2,000,000	76	81.7	
	₩2,010,000-₩3,000,000	14	14.0	
	₩3,010,000-₩4,000,000	2	2.2	
	Above ₩4,010,000	2	2.2	
Position	Ordinary therapist	85	91.4	
	Superintendent therapist	8	8.6	
Health status	Worst health	3	3.2	
	Worse health	15	16.1	
	Normal health	52	55.9	
	health	21	22.6	
	Very heath	2	2.2	
		93	100.0	

M±SD: Mean±Standard Deviation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특성 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은 문항을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 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간의 삶의 질과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정과 일원 배치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경우 Duncan의 다중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25세 군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27세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43명, 여성이 50명이었다. 직종은 물리치료사 60명, 작업치료사 33명이 있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자가 77명으로 82.8%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전문학사가 56명이었으며, 경력은 3년 이하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42개월이었다. 월급은 200만 원 이하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관리직 치료사가 8명, 일반 치료사가 85명 있었다. 건강 상태는 정상이라고 답한 군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

업무 스트레스는 물리치료사 군이 평균 3.38점이고, 작업치료

사 군이 평균 3.54점으로 작업치료사 군이 더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대상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평균 3.10점, 업무 스트레스는 평균 3.42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은 물리치료사 군이 평균 3.11점이고, 작업치료사 군이 평균 3.07점으로 물리치료사 군이 작업치료사 군보다 더 높은 주관적 삶의 질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Table 2.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s and occupational therapists.

Variables	Physical therapists	Occupational therapists	Total	t	p
	Mean±Standard Deviati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3.11±0.22	3.07±0.17	3.10±0.20	1.01	0.32
Job stress	3.38±0.46	3.54±0.39	3.42±0.48	-1.76	0.09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

업무 스트레스는 남성 군이 평균 3.32점, 여성 군이 평균 3.51점으로 여성 군이 남성 군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5). 주관적 삶의 질은 남성 군이 평균 3.12점, 여성 군이 평균 3.05점으로 두 군 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수준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은 전문학사 군이 평균

3.05점, 학사 군이 평균 3.18점, 석·박사 군이 평균 3.13점으로 세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학사 군과 학사 군, 전문학사 군과 석·박사 군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월급의 차이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은 200만 원 이하 군이 평균 3.07점, 201~300만 원 군이 평균 3.16점, 301~400만 원 군이 평균 3.43점, 401만 원 이상 군이 평균 3.21점으로 네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급이 200만 원 이하 군과 201~300만 원 군, 200만 원 이하 군과 301~400만 원 군, 200만 원 이하 군과 401만 원 이상 군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건강 상태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는 ‘매우 건강하다’ 군이 평균 2.64점, ‘건강하다’ 군이 평균 3.25점, ‘정상’ 군이 평균 3.47점, ‘건강하지 못하다’ 군이 평균 3.53점,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군이 평균 3.74점으로 다섯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우 건강하다’ 군과 ‘건강하다’ 군, ‘매우 건강하다’ 군과 ‘정상’ 군, ‘매우 건강하다’ 군과 ‘건강하지 못하다’ 군, ‘매우 건강하다’ 군과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군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3).

4. 일반적인 특성,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인 나이, 임상경력, 학력 및

Table 3. The difference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job stress among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Variables	Cartgory	Subjective quality of life			Job stress		
		M±SD	F or t	p	M±SD	F or t	p
Sex	Male	3.12±0.23	1.02	0.31	3.32±0.50	-2.11	0.04
	Female	3.08±0.17			3.51±0.38		
Education	Associated degree	3.05±0.17 ^a	3.40	0.03	3.47±0.43	1.61	0.21
	Bachelor’s degree	3.18±0.24 ^b			3.44±0.47		
	MSc or PhD	3.13±0.22 ^b			3.26±0.48		
Pay	Below ₩2,000,000	3.07±0.18 ^a	3.15	0.03	3.45±0.42	1.91	0.13
	₩2,010,000 - ₩3,000,000	3.16±0.24 ^b			3.25±0.50		
	₩3,010,000 - ₩4,000,000	3.43±0.37 ^b			3.04±0.90		
	Above ₩4,010,000	3.21±0.37 ^b			3.85±0.53		
Health status	Worst health	2.86±0.03	2.21	0.07	3.74±0.28 ^b	3.35	0.01
	Worse health	3.11±0.15			3.53±0.39 ^b		
	Normal	3.07±0.19			3.47±0.42 ^b		
	Health	3.17±0.23			3.25±0.47 ^b		
	Very heath	3.22±0.18			2.64±0.45 ^a		

^{a, b}: Duncan’s multiple test, a<b

Table 4. Correlation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job stress according to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Age	Clinical career	Education	Pay	Job stress	Subjective quality of life
Age	1					
Clinic career	0.86**	1				
Education	0.60**	0.53**	1			
Pay	0.79**	0.86**	0.51**	1		
Job stress	-0.03	0.07	-0.17	-0.49	1	
Subjective quality of life	0.14	0.11	0.20	0.27*	-0.28**	1

*p<0.05, **p<0.01

월급 정도와 업무스트레스,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나이는 임상경력($r=0.86$), 학력($r=0.60$), 월급 정도($r=0.79$)와 강한 정 상관관계에 있었다. 임상 경력은 학력($r=0.53$)과는 뚜렷한 정 상관관계를, 월급 정도($r=0.86$)와는 강한 정 상관관계에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는 주관적 삶의 질($r=-0.28$)과 약한 역 상관관계에 있었다.

IV. 고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여성이나 장애인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국내 연구는 많았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소수가 있다.^{9,10}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스미스클라인 비참을 사용하였으며 5점 만점으로 측정하여 평균 3.10점이었다. 서울, 경기 지역의 암 환자를 돌보는 종합 병원 간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¹³에서는 간호사의 삶의 질을 5점 만점의 측정도구로 측정한 결과 평균 3.22점이라고 하였다. 5개 병원의 임상 간호사 450명을 대상으로 스미스클라인 비참을 사용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¹⁴에서는 임상 간호사의 주관적 삶의 질을 평균 3.01점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주관적 삶의 질 점수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 스트레스 또한, 측정하였다. 전체 평균 3.42점으로 나타났다. 1990년 대한물리치료학회 등록된 물리치료사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⁹에서는 30문항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으며, 최저 0점, 최고점 4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 50.9점의 업무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 방식에 따라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환산 작업을 하면, 1990년 당시

물리치료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평균 2.1점에 해당된다. 측정도구가 상이하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 20년의 지난 현재의 업무 스트레스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업치료사 93명을 대상으로 한 Yang 등¹⁰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경우가 남자에 비해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 군의 업무 스트레스가 평균 3.51점, 남성 군은 평균 3.32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업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업무 스트레스는 나이, 임상경력, 월급, 학력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삶의 질은 학력 정도와 월급 정도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삶의 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이 항상 정비례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정비례 관계에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주관적 평가에 의존한다는 연구⁴와는 다른 결과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국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유층집락무선 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으로 879명을 표본 추출하여 스포츠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¹⁵에서 학력은 삶의 질과 관련된 일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¹⁶에서 소득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40% 이상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oon과 Cho의 연구¹⁷에서도 임상간호사의 주관적 삶의 질에 가족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업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전과 충남지역 임상간호사 14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¹⁷에서 제시한 업무 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부산지역 289명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한 연구¹⁸의 결과에서도 건강 상태가 업무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주관적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았다. 건강 상태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Yi의 연구⁹에서는 성별과 교육변수가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성별과 학력 정도가 업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기혼 교사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Choi의 연구¹⁹와 수도권 간호사 154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등과 삶의 질에 대해 설문조사 한 Kim의 연구²⁰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삶의 질에 영향을 예측변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고, Texas 주에 등록된 물리치료사 96명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²¹나, Missouri 주 물리치료사 187명을 대상으로 연구²²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역할 스트레스가 감정적, 신체적 웰빙의 예측인자로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연구에서 역시, 업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체 물리치료사 중 882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²³에서 업무 스트레스의 원인인 업무 긴장도와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이직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과 업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²⁴에서도 업무스트레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본 연구 결과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주관적 삶의 질 척도의 중간 점수 수준의 삶의 질과 환자 및 보호자, 다른 전문 의료인 등의 다양한 대상자가 있는 환경에서 복잡하고 주관적 삶의 질 척도의 중간 점수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 하에서 환자 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급여수준이나 고용안정성 같은 객관적 삶의 질 지표뿐만 아니라 업무스트레스 같은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근무환경 개선 작업 등이 동반된다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특정 도시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집단을 대상으로 의도표집 방식에 의하여 대상자를 추출되었고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에게 적용시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자아존중감, 직무 만족도,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

고,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은 역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삶의 질은 낮아지고, 업무 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업무 수행능력이나 시간에 비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고, 업무상 자율성이 보장 되고, 근무지에서 환자 치료에 주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로 인한 피로를 낮추고, 전문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기회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실패감을 느끼는 등의 주관적 삶의 질을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의료의 발전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하고 치료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저하된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 업무 상 받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된다면 치료사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uthor Contributions

Research design: Lee IH, Koo HM

Acquisition of data: Lee IH, Koo HM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Koo HM, Lee IH

Drafting of the manuscript: Koo HM, Lee IH

Research supervision: Koo HM, Lee IH

참고문헌

1. Kim SL, Jung HS, Lee JE et al. Factors 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in workers - through the application of NIOSH job stress model.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3;14(2):190-9.
2. Karasek R, Gardell B, Lindell J. Work and non-work correlates of illness and behavior in male and female Swedish white-collar workers. J Organ Behav Manage. 1987;8(3):187-207.
3. WHO. Programme on mental health. WHOQOL user manual. Division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1998.

4. Yoon JS, Kook SH, Lee MS. A preliminar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SmithKline Beecham 'Quality of Life' scale (KvSBQOL).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8;37(2):280-94.
5. Stansfeld SA, Bosma H, Hemingway H et al. Psychosocial work characteristics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SF-36 health functioning: the Whitehall II study. *Psychosom Med.* 1998;60(3):247-55.
6. Bergner M. Quality of life, health status, and clinical research. *Med Care.* 1989;27(3 Suppl):S148-56.
7. Hollandsworth JG Jr. Evaluating the impact of medical treatment on the quality of life: A 5-year update. *Soc Sci Med.* 1988;26(4):425-34.
8. Kwon MJ. Satisfaction of utilization of physical therapy of life for caregivers of cerebral palsy children. *J Kor Soc Phys Ther.* 2009;21(2):55-63.
9. Lee KH, Jung B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J Kor Soc Phys Ther.* 2009;21(3):109-18.
10. Yi CH. Work-related stress among physical therapists. *J Kor Soc Phys Ther.* 1990;2(1):65-74.
11. Yang YA, Hur JG, Nor YMet al. The study of job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2007;26(3):1-9.
12. Kim JH. The study on the job stress and the symptoms of the stress of clinical nurs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1.
13. Dunbar GC, Stoker MJ, Hodges TCP et al. The development of SBQOL-A unique scale for measuring quality of life. *Br J Med Econ.* 1992;2:65-74.
14. Park MS, Yoo YS. Burde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005;8(1):8-17.
15. Yoon JW. A prospective model of subjective life quality of clinical nurses. Keimyu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Doctorate Degree. 2009.
16. Kim HW. The effects that sport activities, of police officers have on mental health, quality of life and job satisfaction. Chunga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Doctorate Degree. 2006.
17. Lee HS. Impact of income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000;23(1):91-117.
18. Yoon HS, Cho YC.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contents, psychosocial factors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in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2007;40(5):351-62.
19. Seo JS.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status of clinical nurses.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2002;5(1):71-85.
20. Choi JE.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teachers and associated variables. Kyungsoo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2004.
21. Kim BJ. The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a 3 shift after the operation of 5 day a week working system. Kyunghee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 Degree. 2007.
22. Speakman HG, Pleasant JM, Sutton GB. The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Physiother Res Int.* 1996;1(4):247-54.
23. Deckard JG, Present MR. Impact of role stress on physical therapists' emotional and physical well-being. *Phys Ther.* 1989;69(9):713-8.
24. Campo MA, Weiser S, Koenig KL. Job strain in physical therapists. *Phys Ther.* 2009;89(9):946-56.
25. Lee MS.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Korean workers and associated variables. Yonsei University. Dissertation of Doctorate Degree. 1998.